

정읍시 '스마트 물 공급 체계' 구축 박차

ICT 기반 관망 수질 감시·관리
SWM 구축사업 5월 중 완료
누수 예방 연 8억여원 예산 절감



정읍시가 ICT(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 공급 체계(SWM) 구축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시 정수장.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스마트 물 공급 체계(SWM) 구축사업에 주력한다. 정읍시는 ICT(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관망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해 110억원(국고 70%)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SWM 구축사업을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현재 공정률은 80%다.

SWM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북은 수돗물 사태와 2020년 수돗물 갈다구 유충 발견 등으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 저하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상수도 시설은 지하에 묻혀있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SWM 구축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 파악 및 물 사용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미터링과 수질 감시를 위한 수질 자동 측정장치를 주요 지점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하에 묻힌 관로의 위치를 도면 없이

확인 가능한 스마트 관로 정보 인식체계를 마련하고, 관로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 세척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자동으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원격) 드레인 설비를 구축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황실에서 정읍지역 모든 수돗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측기를 통해 상수도 수질과 수압, 관망 현황 등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는 실시간 관리체계와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해 누수 등의 상수도 사고 이상장후 발견과 감

시가 쉬워져 누수 예방을 통한 연간 8억여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 체계가 구축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정읍시 수돗물 관리 위탁 기업인 K-water 정읍수도센터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시, 청년 셰어하우스 1호점 입주자 모집

임대료 월 5만~7만원



남원시가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조성한 '청년 셰어하우스'.

남원시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조성한 '청년 셰어하우스 1호점'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주소 이전이 가능한 무주택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선정된 입주예정자에게는 월 5만원~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주방과 거실, 화장실 2개, 2인실 및 1인실로 구성된 거주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청년 셰어하우스를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청

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남원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103주년 3·1절 기념식 만세삼창



1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열린 103주년 3·1절 기념식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관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보훈단체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했다. <순창군 제공>

고창군, 포대당 5820원

벼 정부보급종 차액 지원

고창군이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차액보상 지원은 정부보급종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창군만이 지원한다.

고창군은 우량종자의 안정적 농가공급으로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수광, 신통진, 새누리 등 7개 품종을 농가로 부터 신청 받았다.

올해 고창군 벼 정부보급종 공급량은 171t으로, 20kg 포대로 8578포가 공급될 예정이며 포대당 5820원의 차액보상금이 농가에 지원된다.

보급되는 메벼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산 보급종 공급가격 4만9020원에서 차액보상금을 뺀 4만 3200원을 농가가 지급하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보급종 매입 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보전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우량종자의 농가 공급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군산 동부권 신도시 금강도서관 상반기 개관

101억원 투입 건립공사 마무리

군산 동부권 신도시지역에 자리를 잡은 금강도서관(사진)이 건립돼 상반기 개관한다.

금강도서관은 지난 2019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 착공한 지 2년만인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101억 5500만원(국비 37억 8200만원, 시비 63억 7300만원)이 투입된 금강도서관은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부지 1500㎡, 연면적 3753㎡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지하 1층은 보존용 도서보관을 위한 보존서고, 지상 1층은 개방형 커뮤니티 가족중심 체류공간인 로비와 유아동자료실, 지상 2층은 독서·학습·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종합자료실, 지상 3층은 가족단위 독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로 구성됐다.

금강도서관은 준공 이후 디자인가구 제작·구입 설치, 자동화장비 및 개관장서 구입, 도서관 내·외부 시설물 보강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시에서 운영중인 도서관 중 처음으로 디자인 가구를 제작 설치하며, 내·외부 공간의 조화와 공간별 특성 및 편의성을 반영한 가구를 제작해 다른 도서관들과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정보이용 및 독서활동 지원은 물론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구현에 중점을 뒀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층·세대별 맞춤형 독서문화 콘텐츠 운영, 초고령화·디지털 매체환경 변화 등 독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교육·문화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저소득층 150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익산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 증가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이번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에

너지 절감(그린 리모델링), 안전, 건강, 위생,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자가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150가구를 대상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